

융복합 맞춤형 인재육성 '취업·창업 허브'로 우뚝

광주대학교

광주대(총장 김혁중)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합기술 교육과정 개발과 미래형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취업·창업 중심 교육명문대학이자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과 광주·전남지역 대학 유일 콘텐츠원캠퍼스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등 발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혁중 총장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합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바탕으로 취업·창업 중심 교육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대 전경.

광주대 제공

◆4차 산업 '꿈꾸는 캠퍼스'

광주대는 광주·전남 대학 중 유일하게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은 산학연관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기반 교육을 통해 미래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형 융합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VR 실감 미디어 기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과 기술 등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대는 이에 앞서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구조,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최첨단 3D VR과 드론, 3D프린터, CG시설을 갖춘 판타지 랩(Fantasy Lab)을 학교 호심관에 마련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차 산업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와 문화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기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미디어콘텐츠센터를 신설했다.

특히 광주대는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첨단 스마트강의실 구축, 미래형 첨단 도서관 구축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박차

광주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회 맞춤형 인재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학생중심의 산학협력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인재 육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
3D·VR드론 등 이론·실무 겸비
유지취업률 90% 이상 높은 수준

지역 유일 '콘텐츠원캠퍼스' 선정
첨단 강의실 등 최고의 교육환경
산학협력 현장실무중심 프로그램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광주권 사립대 중 최고 장학금 지원

◆창업희망자 지원 적극

광주대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55여억 원의 국비를 받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비용과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 지표를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정보공시 1차 기준)에서 2017년 90.3%, 2016년 90.8%, 2015년 91.9% 등 최근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창업관련 전문성과 현장감을 겸비한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거점(윈스톱상당장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사업을 추진, 창업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각 기관과 연계해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국책사업 선정 효과 입증

4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는 창업분야 뿐 아니라 취업 분야에서도 관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광주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미래형 실습실 구축(교육공간 4개·실습공간 8대)과 협약 기업 발굴 및 확대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링크사업(LINC+)을 통해 컴퓨터공학과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드론학과, 융합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국비 30여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전자공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



광주대 토목공학과 학생들의 실무교육 모습.

광주대 제공

력양성사업에 선정, 에너지인력장학금 지원과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장학금 지원 '광주 사립대 1위'

광주대는 다양한 장학·복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학제도는 호심매원특별장학금을 비롯해 이공계과학인재장학금, 극기특별장학금 등 수능(수시) 성적 우수장학금과 어학우수자 장학금,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복지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ROTC(학군단)장학금 등 50여 종이다.

장학금(2018년 정보공시 기준)은 재학생 1인당 평균 402만원으로 재학생 5천명 이상 사립대 중 호남권 3위, 광주권 1위이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취업과 창업 관련 대형 국책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다가

오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1천710명 선발

광주대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1천737명(정원내 1천647명, 정원의 90명) 중 수시모집에서 1천710명(98.4%)을 선발한다.

총 6회 지원이 가능한 수시모집에서 광주대는 최대 3회까지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은 일반학생전형 1회, 지역학생전형 1회, 기타 전형(고른기회, 농어촌, 수급자 등) 중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실시된다.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70% + 면접 30%(일반학과 면접 40%), 지역학생전형을 포함한 나머지 전형은 학생부 100%가 반영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광주대학교 홈페이지(www.gwangju.ac.kr)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학생전형 지원자는 10월 16일 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가정에서 만나는 천로역정의 세계! IPTV 및 케이블TV VOD 서비스 개시!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첸**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간 '크리스첸',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왓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인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첸! 천국에 닿을 때까지!"

여름성경학교 단체관람 문의 | ☎ 062.376.8500 (광주CBS 총무국) 수입/배급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전체관람가 **전국 극장 절찬상영중**